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선열들과 유엔참전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 사랑방 바이블 데이(성경퀴즈)가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종강발표회가 29일(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 장신대 신대원 ‘교회 밖 현장실천’은 잘 마쳤습니다. 숙소와 식사 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주일은 역할공동체별로 2/4분기 실행위원회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서병욱 · 임진숙 집사 가정 (감사)
조장희 · 이재신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범준 청년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5 호

2024년 6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희생, 참담하면서도 고귀한

희생자들을 기릴 일이 많은 6월입니다.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 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쓰여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내버리게 되는 만큼, 희생은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에 물결을 일으키며 경이롭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때론 불행한 상황에 휘말려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쟁만큼이나 무고한 희생자를 많이 낳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은 한국전쟁이 있었던 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그 과정을 겪었던 한 사람의 편지입니다.

- 1950년 8월 10일, 쾌청 -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디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디어 이 글을 씁니다. 괴뢰군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 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디어 있는 학우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天主)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웅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

위의 편지는 포항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도병의 것입니다. 그는 아직 어렸음에도, 험악한 시대 속에서 전투터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환경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지만, 또한 가족을 위해 도망치지 않고 전투에 몸을 던졌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6.25전쟁이 이어졌던 3년의 시간, 양쪽 진영의 군인 사상자 180만명, 민간인 피해자 400만명, 이산가족 1000만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만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있는 비극의 덩어리였습니다. 비극을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통을 덜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배경이고 살아있는 상처입니다.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평화를 위해, 죽음까지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애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복음 15:13)”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12장 322장 325장
기도 :
성경 : 다니엘 1장
제목 : 다니엘의 신앙에 따른 다짐과 실천

1-7 바빌로니아에게 진 유다

해석: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 인적 손해가 따라 온다.
적용: 신앙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

8-16 다니엘의 다짐

해석: 신앙적 결단, 다짐은 어려움가운데 신앙을 지키게 한다.
적용: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습관, 하나님을 생각 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자.

17-21 신앙적 다짐의 결과

해석: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적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신앙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자.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자.

한 학기를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주보 글을 써보는 것이 처음이라 막연한 심정이지만, 글을 쓰게 되어 기쁩니다! 2024년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멋쟁이학교는 학기말에 다달아서 다들 학생자율평가서를 쓰기 바쁘는데요, 학생자율평가서는 학생 스스로가 한 학기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평가하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생님 앞에서 읽어드리며 한 학기를 정리하며 더 나은 다음 학기를 위해 준비하며 한 학기를 마칩니다.

학생자율평가서를 쓰며 학기 초 저의 다짐이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일기에 써져 있는 저의 다짐과 목표를 보며 잘 지켜졌나? 잘 지켜지지 않았나?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기 초 저의 목표는 아침 달리기였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시작한 달리기였지만 한 학기 동안 달리를 아침마다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정했던 목표를 이루어 나가며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늘의 생활의 더욱 충실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년초에 정했던 목표들이나 다짐들을 까먹진 않았는지, 지금 이 글을 통해 년초에 정했던 목표들이나 다짐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표들을 꼭 이뤄나가실 응원합니다!

푸른꿈사랑방 박지호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84 : 1-4 인도자
6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골로새서 1 : 13-14 인도자
371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태복음 8 : 18~27 설교자
429 미리내사랑방
“ 풍랑 속에 드러난 믿음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02 다함께
인도자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차현주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풍랑 속에 드러난 믿음

배에 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
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은 배에 함께 올랐습니
다. 항해를 하는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
르자,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
다. 예수님은 그들의 적은 믿음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
케 하셨습니다.

풍랑이 드러낸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은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다 드
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보여주
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자신
들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항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항해
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풍랑
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믿음의 사
람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혜정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주에는 포천소방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꾸러기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멋진 소방관선생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위해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소방관선생님들이 활짝 웃으시면서 반겨 주셨습니다. 꾸러기를 맞아주시는 선생님께서 순서대로 소방서에서 소방관선생님들이 활동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구급차를 태워주시며 설명과 함께 궁금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선생님들이 오셔서 소방차에 호수를 연결해 물을 같이 짜보기도 하고, 출동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차량을 설명해주시며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차를 타고, 소방관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직접 보면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선생님들이 참 멋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나들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주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을 대절해서 재밌는 미니올림픽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었습니다. 꾸러기에서 멋쟁이까지 성별, 나이, 신체 능력 등 다 다르지만 모두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은 어린이, 멋쟁이 선배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참여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유난히 더운 한 주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얼음물을 가져오고, 교장 선생님은 아침부터 선크림을 바르고 오지 않은 어린이들의 얼굴에 발라주시느라 바쁩니다. 오전부터 울리는 폭염주의보 경보는 걱정스런 하루를 시작하게 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시원함이 있는지 바깥놀이와 운동을 계속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은 알찬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감자를 캐고 이 날 캔 감자를 잘 말려서 주중에 각 가정에선 감자요

리도 해 먹었습니다. 또 월요일 오후에는 연합나들이 사전모임도 가지며 얼굴을 익히고, 모듬의 이름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색다르게 외부의 실내 체육관에서 가진 놀이로 하나되는 연합의 시간은 꾸러기부터 멋쟁이, 그리고 공동체학교의 선생님들 모두 함께이기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예술에 가까운 정성스런 2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는 꾸러기, 어린이들의 가정에 감사드리고, 굶은 일 마다 앓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멋쟁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에는 이번 학기 마지막 학부모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보내며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음이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이번 학기의 시간들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의 머리 위로 뜨거운 불벼락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쉬는 시간만 되었다하면 축구공을 차려 나가는 열정은 그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운동장에 물을 뿌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먼지는 구름 같이 피어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멋쟁이들의 기세는 사뭇 매섭습니다. 이번에는 사랑방공동체에 방문하신 장신대 신대원 손님들과도 즐거운 경기를 펼쳤답니다.

목요일에는 다들 마음속으로 대비하고 있던 학기말 자율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과정은 멋쟁이들을 고뇌에 빠지게도 하지만, 이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금요일에는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웃을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고 또 후배들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녹초가 되도록 열심을 다한 멋쟁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주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나서 한 학기에 대해 평가하는 기말면담주간입니다. 그 끝에는 종강발표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같은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가족 이야기

나는 일곱 남매 중 세 번째이고 남자 중에는 첫 번째이다.

1950년 겨울에 결혼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때 아버지 나이 스물둘 어머니 열여덟에 결혼하여 일년도 못사시고, 6.25로 인하여 아버지는 인민군에 끌려가시다가 대전 근처에서 도망쳐 집에 와서 숨어 계시는 와중에 큰아버지 영장이 나와서 아버지께서 대신에 군대에 가면 부역한 것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군대에 가셨는데 장장 8년을 근무하고 제대하셨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제주도 06 군번인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제대 후부터 그 다음 해에 큰누나를 시작으로 자식을 일곱을 두셨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좋아하셔서 나는 국민학교 일학년 때부터 아버지 모시러 가는 것이 내 하루를 마무리 하는 걸로 알고 자랐다. 겨울에는 힘들고 무서웠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탕 하나에 만족하며 모시러 다녔었다. 그러다가 국민학교 사학년 때 이후로는 아버지의 군대시절과 어릴적 이야기를 1-2시간씩 술주정으로 받아주어야 했다. 그 시작과 끝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었다. 나중에 동생들에게 물어보니 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한테만 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윤희 권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마도 아버지는 큰놈들한테만 이야기하셨나 보다?

지금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큰매형도 가시고 일곱에서 열넷이 되더니 이젠 열셋으로 줄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열시미 살아야겠지.

14~15일 형제(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족들 앞으로도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글을 적어본다.

사랑방 식구들도 열시미 사랑하며, 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도 합니다.

다들 힘차게 앞으로……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15장, 182장

성 경 : 요한복음 7장 37~39절

말 씬 :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주변 국가들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최근 터전을 옮기면서 여러가지로 새로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용택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공동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 행사와 손님들을 위해서>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와 공동체 학교 연합나들이를 위해서
 - ㉡ 교회밖 현장 실천으로 방문하시는 신대원 학생들과 샘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 ㉢ 주일에 있을 바IBLE데이 참여와 진행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주중에 장신대 신대원 분들이 교회 밖 현장실천이라는 수업으로 2박 3일 동안 공동체에 머물렀습니다. 공동식구들은 숙소도 제공하고, 주말에 식사도 대접하면서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섬겼습니다.

목요일에는 신대원 분들과 함께 생활공동체 전체가 방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로 사는 유익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의 소명을 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